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전략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위원
jhjung@kiep.go.kr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김홍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김주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hye@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 부록

주요 내용

- ▶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국 지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를 종합 분석
-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은 △소비 중심의 양적 확대 △소비·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 병행을 거쳐 현재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융합 정책으로 변화
- ▶ 중국의 내수확대는 주로 중서부 지역의 투자수요 증대에 기인하나, 지역간 교역을 통해 동부의 고부가 상품·서비스가 중서부로 이출됨에 따라 동부의 부가가치 순이입이 증가
 - 내수로 유발된 수입(중간재+최종재)의 비중은 투자 수요로 유발된 중간재 수입을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최종재 수입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동부지역 편중이 심화됨.
 - 중간재 수입을 유발하는 수요지역(내수확대지)과 중간재를 직접 수입하는 지역(생산거점)은 상이할 수 있으며, 중간재 수입지역의 동부지역 편중도가 더 높음.
- ▶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와 달리 한국의 수출은 광둥·장쑤 등 상위지역 집중도가 강화되고 전자부품 등을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수출경쟁력 약화(특히 자동차·부품)
 - 의료용품(임플란트), 화장품(특히 산둥, 허난) 등은 점유율 및 비교우위 상승
- ▶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이 유지·상승되고 있는 분야 관련 생산거점(수입거점) 지역과의 협력 강화와 한국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관련 지역 발굴방안 모색 필요
 - 디지털·정보화·교통 인프라 및 신산업 등 제조업 투자 분야와 비대면·온오프라인 융합 등 신소비 분야에서 동부지역 및 일부 내륙 거점 중심의 경험 강화 중요
 - 특히 중국이 추구하는 자립형 내수발전의 주요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전략(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GBA(Great Bay Area), 쓰촨·충칭도시군) 활용 필요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융합 진출방식 활용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중국 주요 지역 공급망 참여 확대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은 한국의 수출 및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미중 갈등의 확대·심화·장기화로 한·중 간 양자협력 및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어려운 상황
 -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세계 2위이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이 다시 본격화
 - 코로나19 이전에는 내수확대보다는 경제의 구조조정(공급 측 개혁)을 중시한 반면, 현재는 내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구조조정)를 융합하여 추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국 중심의 반중연대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주변국과의 협력 연대 의지가 강화될 전망으로, 한국의 대외협력 관련 운신의 폭이 축소될 우려
-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국 지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 지역 단위의 협력 추진은 국가간 협력보다 유연하고 실리적으로 접근 가능
 - 미국 및 일본의 기업 및 협회 등은 자국과 중국 간 관계 냉각기에도 중국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 등 지방과의 협력을 유지·확대
 - 중국이 새롭게 추진 중인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전략에서 내수의 비효율성 제거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 내 지역간 경제 및 산업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전망
 - 쌍순환 전략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산업 공급사슬을 확충하고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려는 중장기 전략
 - 중국은 지방보호주의로 인하여 야기되는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제약, 구조조정 지연 등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국내대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국내연구의 외연 확대를 통해 자립형 내수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구조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시대, 한국에 의미 있는 협력 지역, 분야 및 방안 등 모색
 - 기존 연구는 주로 중국의 소비시장 및 수입시장에 대한 분석 위주이고, 또한 지역 내수시장 연구는 지역별로 분절된 시장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 본 연구에서는 내수시장의 분석범위를 중국 내 최종수요(투자 및 소비 수요) 전체로 확대하고 중국 지역간 교역관계 등 상호경제관계까지 분석
 - 중국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

- 또한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의 시기별 변화 및 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 전망
- 이밖에도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을 가공단계 및 업종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지역 수입시장 및 주요 수입품목의 특징 변화와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등을 종합 분석
- 이러한 분석을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종합

표 1. 본 연구의 중국 지역 분류

| 권역 | 성(省)급 지역 |
|----|--|
| 동부 | 함발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둥(山东) |
| | 화동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
| 중부 | 광둥(广东),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
| 서부 |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산시(山西), 장시(江西) |
| | 쓰촨(四川), 충칭(重庆), 산시(陕西), 윈난(云南), 간쑤(甘肃), 닝샤(宁夏), 칭하이(青海), 티벳(西藏), 신장(新疆), 네이멍구(内蒙古), 광시(广西), 구이저우(贵州) |
| 동북 |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 |

자료: 저자 작성.

표 2. 본 연구의 업종 분류

| 산업 | 업종 구성 |
|---------------|---|
| 농림어업 | 1.농림어업 |
| 광업 | 2.광업 |
| 제조업 | 3.식음료, 4.섬유·가죽, 5.목재·가구·종이·인쇄, 6.석유·석탄가공, 7.화학제품(+의약품), 8.비금속광물제품, 9.금속제련·압연가공, 10.금속제품제조, 11.일반특수설비, 12.교통운수설비(+자동차), 13.전기기계, 14.전자·컴퓨터·통신설비, 15.계측기기, 16.기타 제조 |
| 전력·가스·물 생산·공급 | 17.전력·가스·물 생산·공급 |
| 서비스업 | 18.건설업, 19.운수·창고, 20.도소매, 21.숙박·음식, 22.사업지원, 23.기타 서비스 |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변화

- ① 글로벌 금융위기 전 양적 확대 전략의 변화: 투자(1998~2005년) → 소비(2006~08년) 확대
 - 아시아 금융위기(1997년) 이후 인프라 투자 중심의 내수확대 정책 추진으로 경기회복
 - 그러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과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하여 11·5 계획시기(2006~10년)부터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로 전환할 방침이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6~08년(11·5 시기 전반부)에는 계획대로 소득증대, 사회보장제도 정비, 소비 환경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촉진 정책을 중점 추진
 - 건설사업, 부동산 투자 관련 조정 및 통제(투자를 적정 규모로 유지)

- ②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투자 및 단기소비 중심의 양적 확대(~2010년)
 - 2008년 11월부터 2010년 말까지 4조 위안 규모의 투자와 감세 등 단기적 소비진작책 시행
 - 정책자금 투입을 통한 인프라 투자증대, 단기금리 및 기준율 인하, 상업은행 대출규모 제한 철폐 등 투자확대 조치 시행

- ③ 12·5 계획시기(2011~15년), 소비 중심의 양적 확대 및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
 - 감세 및 직접보조금 등을 통한 단기적 소비촉진책 외에 가계소득과 소비성향 자체를 장기적으로 제고하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 유도
 -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및 감세를 통한 가처분소득 확충 △소비재 보조금 지급, 신용대출 확대, 사회보장제도 정비 및 신소비 촉진 등 소비성향 제고 △신형 도시화 등을 추진
 - 그러나 △소득불균형 심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축소 및 고령화 △사회보장제도 미흡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의 증가율과 평균 소비성향 하락세
 - 한편 2012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로 둔화 및 지속되어(중속성장 고착화), 기존의 총수요 조절 정책 외에 '공급 측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2015년에 제시됨.
 - '공급 측 구조개혁'은 대규모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양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 제고 및 제도혁신 기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중국경제의 체질개선 추구)

- ④ 13·5 계획시기(2016~20년), 소비·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공급 측 구조개혁
 - 총수요의 적절한 확대 및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 병행
 - [공급] 과잉산업 구조조정 및 신산업 육성 등 유효공급 확대 중시
 - [수요] 신소비 모델 발전과 제품·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소비 업그레이드를 추진, 신형 도시화·지역균형발전 전략 중심으로 인프라·공공주택·차세대 정보 인프라 건설 등 유효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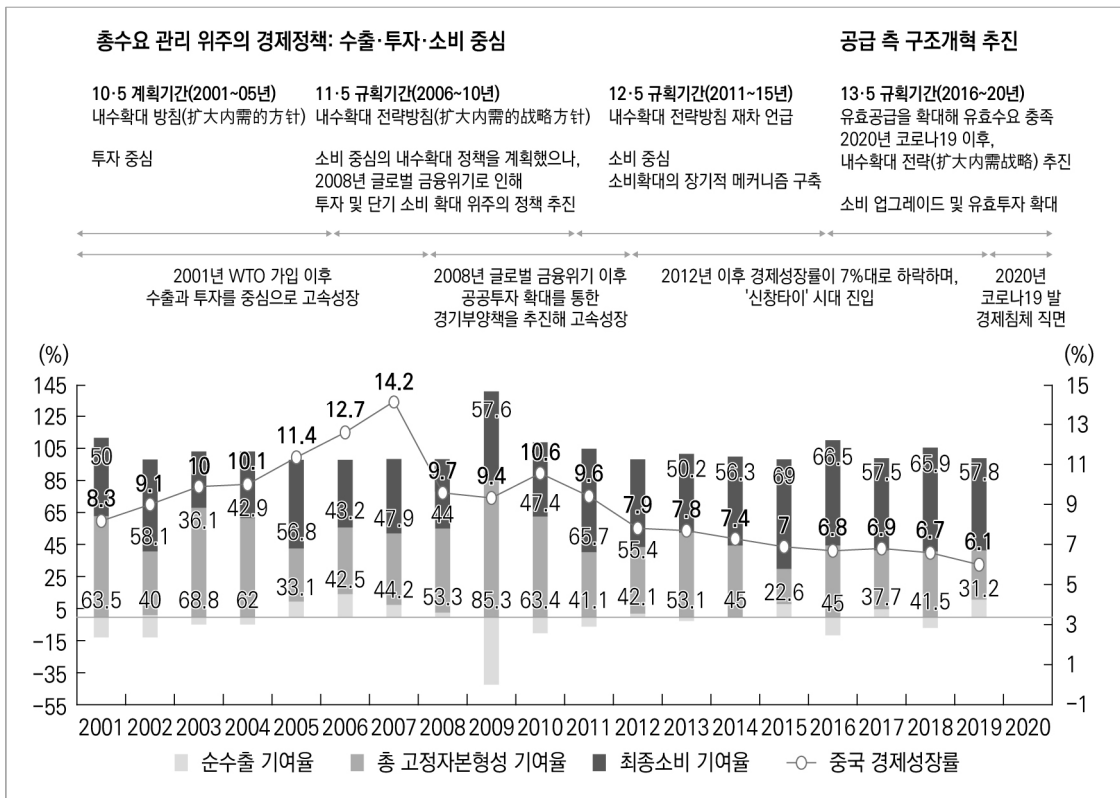
- ⑤ 2020년 이후, 내수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융합(내수부양+구조조정)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침체에 대응해 다시 내수확대 전략 강화
 - 코로나19 전까지 내수의 질적 제고를 추진하다가, 다시 금융위기 직후와 유사한 경기부양 추진
 - 대규모 정책자금(약 11조 위안, 2019년 GDP의 10.5%)을 투입하여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 지원, 감세 등 추진

- 첨단·미래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신형 인프라'(정보·융합·혁신 인프라)라는 신개념을 확립하여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 14·5 계획기간(2021~25년), 내수확대 및 공급 측 구조개혁 융합 추진

-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 추진
 - [투자] 신형 도시화, 신형 인프라, 중대형 프로젝트 및 전략적 신산업 중심
 - [소비] 비대면 거래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등 신소비 모델 발전 촉진
- 혁신이 중심이 되면서 고품질 공급을 기반으로 한 신수요 창출 도모

그림 1. 중국의 시기별 내수확대 정책방향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 ⑥ 지역별 내수확대 전략 특징: 중서부 내륙은 투자확대 전략지, 동부는 질적 성장의 견인차
- 2000년대 초반 중서부 지역의 인프라, 산업기반, 도시화 및 소비 수준, 내구재 보유량 등이 저조하고 동부와의 격차가 축소되지 않자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전략 등 추진
 - 서부는 인프라 투자, 중부는 제조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 내 비중도 증가
 - 서부는 열악하던 교통·에너지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
 - 중부는 제조기지 건설, 동부지역 산업을 이전받는 등 제조업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
 - 특히 14·5 계획에서 서부의 청위(쓰촨·충칭) 도시권 발전이 강조되어 투자확대가 지속될 전망
- 경제적 위상이 절대적인 동부지역은 첨단산업·고급서비스업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
 - 지난 20년간 동부는 중국 GDP의 50% 이상, 무역의 80% 이상 유지
 -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및 산업고도화, 기술혁신역량 제고, 개방 확대, 공급 측 구조개혁 등을 선도하여 내수의 질적 제고 선도
 - 14·5 계획에서도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삼각주(상하이·장쑤·저장·안후이),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등 동부지역이 현대화 발전을 선도할 것을 강조
 - 첨단산업·고급서비스업 투자확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5G와 IPv6 네트워크 등 신형 인프라 구축 확대와 함께 신소비 모델 발전 주도

2) 중국 내수시장 내 지역구도 변화: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1)

- ① 내수(국내 최종수요)²⁾의 성장 및 구조 변화: 중서부 투자 중심으로 확대
- 지역별 최종수요 구조 상이: 내륙지역은 투자 중심의 내수집중 구조, 동부 연해에 수출수요 집중
 - 화동 및 화남은 내수(국내소비+투자) 비중이 60%대로 소비, 투자, 수출 비중이 비교적 균형적
 - 중서부 내륙 및 동북은 투자 비중이 과반(수출비중 10% 미만)인 내수 중심의 수요구조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종수요 중 투자비중 증가, 반면 소비 및 수출 비중은 감소하거나 정체
 - 한편 화동지역(상하이, 장쑤, 저장)은 소비수요 규모 및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장쑤는 최종수요 중 수출비중 감소(-11.5%p)가 대부분 소비비중 증가(10.3%p)로 전환, 반면 수출비중 감소폭이 장쑤와 유사한 광둥은 내수비중 확대(45%→57%) 중 투자(5.8%p) 및 소비(6.1%p) 수요가 균형적으로 증가

1) 중국의 성(省)급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2012년이 최신 연도이고 5년마다 발표되고 있으므로, 2007년과 2012년을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2017년 중국 전체 산업연관표가 2019년에 발표되었고, 2017년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이에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결과는 2012년의 구조적 특징과 2007년 대비 변화임.

2) 최종수요는 투자, 소비, 수출 수요로 구성되며 이 중 투자 및 소비는 국내최종수요, 즉 내수임.

표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지역별 최종수요구조 변화

| 지역 | 2012년 최종수요구조(%) | | | | 2007년 대비 구조 변화(%p) | | | 연평균 증가율(%)* | | |
|-----|-----------------|------|-----------|------------|--------------------|------|-------|-------------|------|------|
| | 국내최종수요(A) | | 수출 (B) | 계 (A+B) | 국내최종수요 | | 수출 | 국내최종수요 | | 수출 |
| | 소비 | 투자 | | | 소비 | 투자 | | 소비 | 투자 | |
| 환발해 | 39.6 | 42.5 | 17.9 | 100 | -3.2 | 10.6 | -7.4 | 11.4 | 19.8 | 5.6 |
| 화동 | 33.8 | 30.6 | 35.6 | 100 | 8.3 | 0.3 | -8.6 | 18.2 | 11.9 | 6.9 |
| 화남 | 33.5 | 28.2 | 38.3 | 100 | 3.9 | 8.1 | -12.0 | 13.9 | 19.0 | 5.3 |
| 중부 | 42.5 | 50.9 | 6.7 | 100 | -6.7 | 7.3 | -0.6 | 15.7 | 22.9 | 17.2 |
| 서부 | 42.0 | 50.2 | 7.7 | 100 | -8.5 | 8.4 | 0.2 | 17.6 | 26.6 | 22.6 |
| 동북 | 40.7 | 49.9 | 9.3 | 100 | -4.9 | 11.4 | -6.5 | 14.5 | 23.4 | 5.4 |
| 전국 | 38.5 | 41.4 | 20.1 | 100 | 0.2 | 8.3 | -8.5 | 15.3 | 20.6 | 7.4 |

주: * 2007~12년 명목가격 기준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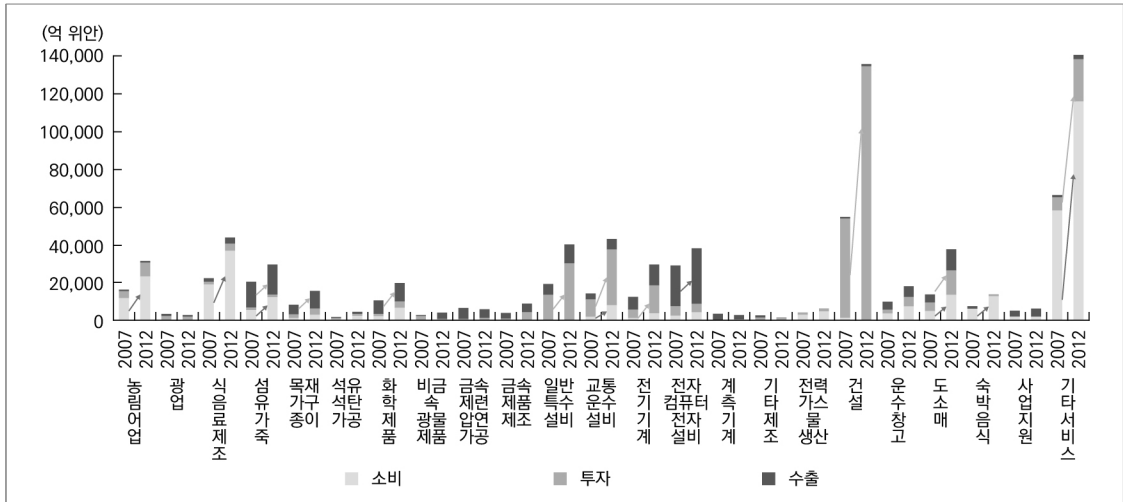
표 4. 금융위기 이후 중국 최종수요 항목별 지역구도 변화

| 지역 | 2012년(A) | | | 2007년(B) | | | 증감(A-B) | | |
|-----|----------|------|------|----------|------|------|---------|------|------|
| | 국내최종수요 | | 수출 | 국내최종수요 | | 수출 | 국내최종수요 | | 수출 |
| | 소비 | 투자 | | 소비 | 투자 | | 소비 | 투자 | |
| 환발해 | 17.0 | 17.0 | 14.7 | 20.3 | 17.5 | 16.0 | -3.3 | -0.5 | -1.3 |
| 화동 | 18.6 | 15.6 | 37.4 | 16.5 | 22.7 | 38.3 | 2.1 | -7.1 | -0.9 |
| 화남 | 14.0 | 11.0 | 30.5 | 14.9 | 11.7 | 33.8 | -0.9 | -0.8 | -3.3 |
| 중부 | 20.4 | 22.8 | 6.1 | 20.1 | 20.7 | 3.9 | 0.3 | 2.1 | 2.2 |
| 서부 | 21.6 | 24.0 | 7.6 | 19.6 | 18.8 | 3.9 | 2.0 | 5.2 | 3.7 |
| 동북 | 8.4 | 9.6 | 3.7 | 8.7 | 8.6 | 4.1 | -0.3 | 1.1 | -0.4 |
| 전국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 - |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서부 비중(9.6%p)이 투자 부문(7.3%p)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동부 감소
 - 내수시장 내 환발해(-3.8%p, 특히 소비 -3.3%p), 화동(-5.0%p, 특히 투자 -7.1%p) 및 화남(-1.7%p) 등 동부 비중 감소
 - 소비 부문에서는 화동(2.1%p, 특히 장쑤 2.4%p) 및 서부(2.0%p) 비중 확대
 - 한편 수출 부문은 화동(37.4%) 및 화남(30.5%, 특히 광둥 25.7%) 집중구조가 유지되면서도 중서부 비중이 확대(5.9%p)

그림 2. 중국 최종수요의 업종별 항목 구조 및 변화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 최종수요의 업종 분포: 높은 서비스업 비중(52%), 특히 건설은 투자, 기타서비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
 - 제조업 중 식음료(6.5%), 교통·운수설비(6.5%), 일반·특수설비(6%), 전자·컴퓨터·통신설비(5.7%) 비중이 높은 편
 - 내수 중 소비수요의 서비스 비중은 58.5%(기타서비스 45%), 제조업 비중은 30.5%(식음료 14.3%, 섬유·의류·가죽제품 4.8%, 교통·운수설비 3.1% 등)
 - 특정 지역에 소비수요가 집중된 업종: 광업 및 일반·특수설비 관련 소비수요는 서부지역에 (48.1% 및 32.5%), 금속제품 및 전기기계 소비는 화남지역에(46.5% 및 29.3%), 비금속광물 소비는 중부지역에(40.5%), 기타제조 및 석유·석탄가공 관련 소비는 화동지역에(38.2% 및 29.2%) 집중
 - 금융위기 이후 석유·석탄가공, 교통·운수설비, 도소매, 화학제품, 전기기계 등의 성장이 연평균 20% 이상
 - 내수 중 투자수요의 서비스 비중은 62.2%(건설 48.2%), 제조업 비중은 34.6%(일반·특수설비 10.6%, 교통·운수설비 10.6%, 전기기계 5.3% 등)
 - 투자수요의 지역 편중 현상은 소비의 편중보다 뚜렷: 기타제조, 광업, 금속제련·압연가공 및 금속제품 제조 투자수요는 중부지역에(63.9%, 46.3%, 40.5%, 31.3%), 전력·가스·물 생산·공급업 및 식음료 제조 투자는 서부지역에(52.4%, 42.1%), 비금속광물 제품제조 및 전력·가스·물 생산·공급업 투자는 환발해지역에(49.7%, 30.3%), 화학제품 제조 투자는 화동지역(29.9%)에 집중
 - 금융위기 이후 화학제품(46%), 전기기계(30.4%), 계측기기(30%) 제조, 기타서비스(27.2%), 교

통운수설비(27.1%) 등이 빠르게 성장

- 한편 수출수요가 가장 큰 업종은 전자·컴퓨터·통신설비, 섬유·의류·가죽, 도소매, 전기기계 등으로 전체 수출수요의 80% 이상이 제조업종

② 내수에 내재된 수입비중 감소세, 최종재 수입의 동부지역 편중 심화

● 중국 국내최종수요(내수)로 유발된 수입(중간재+최종재)의 내수 대비 비중(=내수 내 수입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2007년 18.3%→2012년 16.2%), 내수 유발 수입 중 2/3가 중간재(10.7%)

- 내수 내 중간재 수입비중은 투자용 중간재 중심으로 감소, 최종재 수입비중은 완만히 증가
 - 금융위기 이후 중국 내수시장이 투자수요에 의해 견인된 것처럼, 내수로 유발된 수입 역시 투자로 유발된 비중이 소비보다 1.5배 이상 많으나 감소 추세
- 지역별 내수에 내재된 중간재 수입은 화남, 화동 및 환발해 등 동부지역(72%)에 집중된 구조이나 금융위기 이후 서부의 비중이 뚜렷하게 상승
 - 서부 비중 증가 요인은 △서부의 투자수요 증대 △일부 제조업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전되면서 관련 수출 및 수입(중간재) 증가
- 최종재 수입은 화동(40%)을 중심으로 동부지역(84%)에 고도로 집중, 금융위기 이후 심화
 - 투자용 최종재 수입이 소비용 수입보다 규모가 크나, 금융위기 이후 소비용 최종재 수입 증가율이 투자용을 상회, 이는 중국의 소득·소비 수준 향상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정책 등으로 지속될 전망
 - 단 소비용 최종재 수입이 동부지역, 특히 상하이, 베이징, 광둥 등에 더욱 집중(유통·물류 환경 및 관련 기업 역량, 경제자유지역 같은 제도 우대 등 요인)

표 5. 중국 지역별 내수에 내재된 수입 중간재 및 최종재 비중 변화

| 최종수요 지역 | 2012년(%) | | | | | | | 2007년 대비 증감(%p) | | | | | | |
|---------|----------|------|------|--------|------|------|-------|-----------------|------|------|--------|------|------|-------|
| | 중간재 비중 | | | 최종재 비중 | | | 전체 수입 | 중간재 비중 | | | 최종재 비중 | | | 전체 수입 |
| | 소비 | 투자 | 내수 | 소비 | 투자 | 내수 | | 소비 | 투자 | 내수 | 소비 | 투자 | 내수 | |
| 환발해 | 10.4 | 14.3 | 12.4 | 6.7 | 8.3 | 7.5 | 19.9 | -1.7 | -3.6 | -2.2 | 4.7 | 0.9 | 3.2 | 1.0 |
| 화동 | 10.8 | 16.5 | 13.5 | 7.2 | 19.5 | 13.0 | 26.5 | -2.0 | -3.2 | -3.0 | 1.3 | 14.9 | 7.8 | 4.8 |
| 화남 | 14.2 | 18.8 | 16.3 | 5.0 | 15.9 | 10.0 | 26.3 | 1.0 | -3.5 | -0.6 | 3.6 | 6.0 | 5.2 | 4.6 |
| 중부 | 5.1 | 7.5 | 6.4 | 0.2 | 1.6 | 0.9 | 7.3 | -3.3 | -6.1 | -4.5 | -0.9 | -3.9 | -2.2 | -6.6 |
| 서부 | 6.5 | 10.3 | 8.6 | 0.3 | 2.0 | 1.2 | 9.8 | -3.0 | -3.4 | -2.8 | -3.0 | -8.5 | -5.3 | -8.2 |
| 동북 | 8.4 | 11.9 | 10.3 | 3.4 | 3.2 | 3.3 | 13.6 | -1.6 | -2.3 | -1.6 | 1.2 | -2.9 | -0.7 | -2.3 |
| 전국 | 8.9 | 12.4 | 10.7 | 3.6 | 7.4 | 5.5 | 16.2 | -2.1 | -4.4 | -3.0 | 0.9 | 0.2 | 0.8 | -2.1 |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 한편 수출용 중간재의 국산화가 내수용 중간재의 국산화보다 빠르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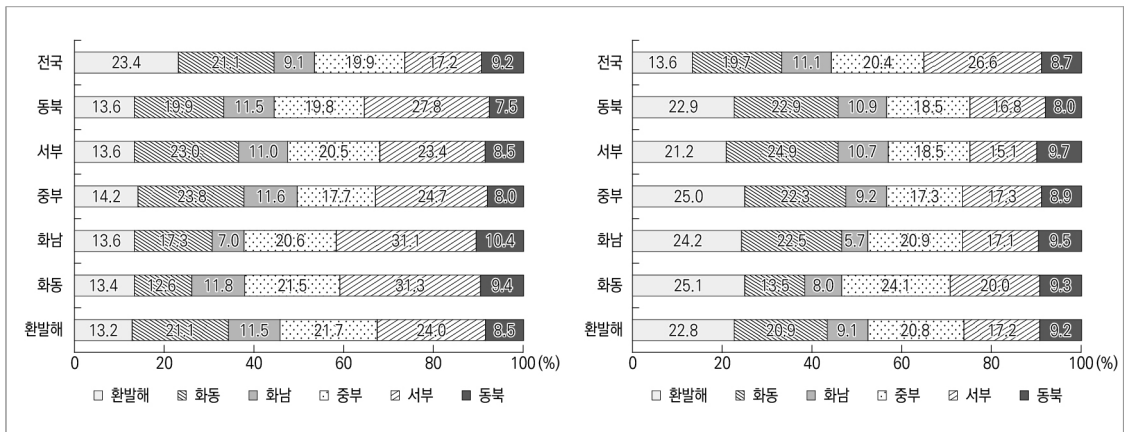
- 중간재 수입의 1/3 이상은 수출용이며, 금융위기 이후 그 비중은 감소세(2007년 48%→2012년 38%)
- 중국 전체 수출 대비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07년 31.4%에서 2012년 25.6%로 감소(-5.8%p)
- 중국 내수 대비 수입 중간재 비중은 같은 기간 13.7%에서 10.7%로 감소(-3.0%p)

③ 중국 내 지역간 교역비중 감소, 동부지역 고부가가치 상품의 중서부 이출 증가

● 중국의 내수용 총산출액(수출 제외) 대비 역내 성(省)간 교역액 비중은 2007년 35.5%에서 2012년 32%로 감소, 즉 금융위기 이후 자가지역 내수의존도 제고

- 2012년 교역규모는 50조 위안(내수용 총산출액 연평균 17.8% 증가, 지역간 교역은 15.4% 증가)
- 한국의 내수용 총산출액 대비 지역간 교역액 비중은 43.6% 수준(2015년)
-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의 생산은 자가지역 최종수요에 대한 의존도 증가
 - 같은 기간 중국의 생산유발계수 분석결과, 자가지역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증가(0.2050p), 타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0.0105p)는 감소
 - 한편 타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은 자가지역이 속한 권역보다는 주로 환발해 및 화동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높았음.

그림 3. 중국의 권역별 이출(좌) 및 이입(우) 구조



주: 1) 동일 권역에 대한 이출 및 이입은 해당 권역 내 타 지역(省)에 대한 이출 및 이입을 의미.
 2) 전국에서의 비중은 이출총액 및 이입총액 중 각 권역의 비중을 의미.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 중서부 투자수요 증대로 전 지역에서 중서부로의 이출 비중이 증가, 특히 주요 이출주체인 환발해 및 화동은 생산 네트워크 기반의 제조업 및 고급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출
 - 중국 전체 이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발해는 주로 금속제련, 광업, 화학제품, 고급서비스가 포함된 기타서비스 및 도소매업 중심으로 이출 비중이 증가
 - 화동은 화학, 기타서비스, 일반·특수설비, 금속제련 분야가, 화남은 기타서비스, 섬유·의류·가죽, 전자·컴퓨터·통신설비, 화학 등이 주요 이출 업종
 - 한편 중서부는 광업, 금속제련, 농림어업, 식음료제조가, 동북은 식음료제조, 광업, 농림어업, 교통운수설비, 석유·석탄가공 등이 주요 이출업종으로 부존자원 관련 품목

표 6. 금융위기 이후 중국 권역별 이출입 구조 변화

| to from | 2007년 대비 2012년 이출구조 변화(%p) | | | | | | from to | 2007년 대비 2012년 이입구조 변화(%p) | | | | | |
|------------|----------------------------|------|------|-----|-------------|-------|------------|----------------------------|------|-------|------------|--------------|-------|
| | 환발해 | 화동 | 화남 | 중부 | 서부 | 동북 | | 환발해 | 화동 | 화남 | 중부 | 서부 | 동북 |
| 환발해 | -4.4 | -7.3 | 0.9 | 6.8 | 6.6 | -2.7 | 환발해 | 5.3 | -7.6 | -1.5 | 5.9 | -0.2 | -1.9 |
| 화동 | -3.0 | -7.9 | -7.3 | 4.3 | 12.4 | 1.5 | 화동 | 8.7 | -7.0 | -11.2 | 6.9 | 1.2 | 1.4 |
| 화남 | 1.6 | -9.3 | -4.3 | 1.9 | 3.8 | 6.3 | 화남 | 12.3 | -4.1 | -5.6 | 2.2 | -10.2 | 5.4 |
| 중부 | -2.9 | -5.6 | -6.3 | 5.7 | 6.5 | 2.7 | 중부 | 7.9 | -7.1 | -8.7 | 5.3 | -0.9 | 3.6 |
| 서부 | -4.6 | 1.1 | -9.0 | 5.9 | 3.6 | 3.0 | 서부 | 3.0 | 3.0 | -9.3 | 3.8 | -4.7 | 4.2 |
| 동북 | -10.4 | 1.5 | 4.0 | 6.2 | 16.0 | -17.3 | 동북 | -1.0 | 4.5 | 3.4 | 4.9 | 5.0 | -16.8 |

주: 동일 권역에 대한 이출 및 이입은 해당 권역 내 타 지역(省)에 대한 이출 및 이입을 의미.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 ④ 지역별 내수로 유발된 중간재 수입과 실제 중간재 수입 지역은 상이
- 실제 중간재 수입지역의 분포는 화남(광둥 27%), 화동(장쑤 14%, 상하이 11%), 환발해(산둥 11%) 등 동부지역 비중이 83%인 반면, 동부지역 최종수요로 유발된 중간재 수입의 비중은 72%
 - 동부지역이 수입한 중간재는 동부지역 내 최종수요에서 모두 사용되지 않고, 국내 생산활동을 거쳐(국산품에 내재되어) 중서부 등 타 지역 최종수요에 공급되기 때문
 - 즉 지역별 중간재의 실제 수입과 최종수요(내수) 간 변화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지역별 최종수요 변화보다는 중간재 수입 거점지역의 변화를 활용할 필요
- 중국의 수입 중간재 중 약 29%가 수입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최종수요에 사용(2012년)
 - 주로 환발해(석유·석탄가공, 금속, 화학), 화동(화학, 전자·컴퓨터·통신설비, 일반·특수설비, 교통·운수설비), 화남(전자·컴퓨터·통신설비)에서 수입된 중간재가 국산품에 내재되어 중서부 등으로 이동
 - 금융위기 이후 수출용 수입 중간재의 지역간 교역은 감소, 내수용 수입 중간재 교역은 증가 추세

⑤ 중국 지역간 부가가치 기준 교역(TiVA) 특징

- 지역간 TiVA 규모는 전체 부가가치의 29% 수준으로 부가가치 이입 규모는 서부, 환발해 및 중부가 가장 컸으나(2012년) 중서부 및 화동은 부가가치 이출 규모가 더욱 커 음(-)의 순이입이 발생
 - 금융위기 이후 부가가치 순이입(이입-이출)의 증가는 환발해(특히 산둥), 화동(특히 장쑤), 화남(광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서부는 순이입이 감소
- 이는 지역간 교역에서 동부지역이 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이출구조를 갖춘 반면, 중서부 지역은 부존자원 기반 제조업의 이출비중이 높기 때문
 -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증가하였으나, 지역간 교역을 통한 부가가치 순이입은 동부지역에서 증가
 - 이러한 지역간 교역의 특징은 14·5 계획기간 더 심화될 가능성
 - 14·5 계획 내 지역발전전략에는 동부지역이 현대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동부가 첨단제조업 및 다양한 고부가 서비스업의 발전을 주도할 전망
-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자기지역에 대한 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타 지역 최종수요로 유발되는 생산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감소했기 때문
-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중국 각 지역이 역내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시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지역간 교역비중 감소, 자기지역에 대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증대 등이 전망됨.
 - 단 국내대순환 중심의 쌍순환 전략 추진에 있어 중요한 중국 내수 효율성이 제고될 경우, 중국 내 지역간 교역비중 증대 및 수입대체 촉진 등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3) 중국 수입시장 내 지역구도 변화

① 금융위기 이후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

- [교역상대국] 선진국 비중 하락 및 개도국 비중 상승, 특히 아세안과의 교역이 급증하여 2019년부터 중국 제1의 수입대상국으로 아세안 부상
 - 선진국 중심의 보호주의 확산으로 중국의 선진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
- [무역방식] 가공무역 퇴조 및 일반무역의 빠른 증가
 - 가공수출 목적이 아닌 중국 내 투자·소비 수요에 의한 수입증가에 기인

- 중국의 내수주도형 성장정책 추진 및 국제무역 둔화추세로 이러한 특징이 심화될 전망

● [업종] 전자·컴퓨터·통신설비 제조, 광업, 화학제품 제조 등 3대 상위 업종에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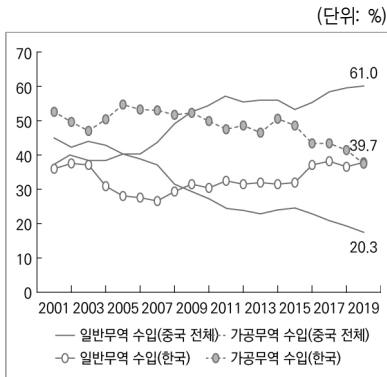
- 전자·컴퓨터·통신설비 관련 수입은 가공무역용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도 대외 수출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 [가공단계] 일차상품과 소비재 비중 상승, 중간재 중 반제품 비중 하락세, 수입중간재의 기술수준 상승

-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반제품 수입 후 가공' 중심에서 '원자재 수입 후 생산' 방식으로 변화
 - 소비재 중 화장품 및 의약품(비내구재) 수입의 빠른 성장세
 - 중저위기술 수입중간재 비중은 하락, 고위기술 수입중간재 비중은 상승 추세, 즉 중국의 수입대체는 주로 중저위기술 품목 위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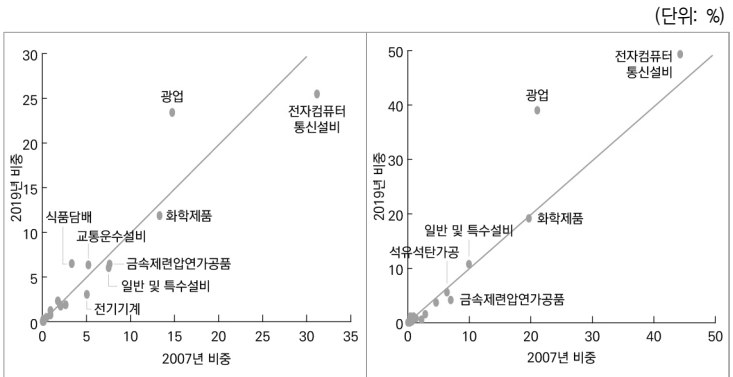
● 한편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가공무역 비중이 여전히 높고 전자·컴퓨터·통신설비(수출용), 화학제품(내수용) 집중구조 유지

그림 4. 중국 수입의 무역방식 변화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그림 5. 중국의 대세계 및 대한민국 수입업종 구조 변화



주: 대각선은 X축과 Y축이 같은 값인 좌표를 이어놓은 선으로, X축에 가까울수록 과거에 비해 현재 비중이 하락한 업종을, Y축에 가까울수록 과거에 비해 현재 비중이 상승한 업종을 의미함.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② 중국 수입시장 내 지역구도 변화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입 상위권 지역 집중도 약화: 서부 비중 확대, 동부 내 산둥·허베이 등으로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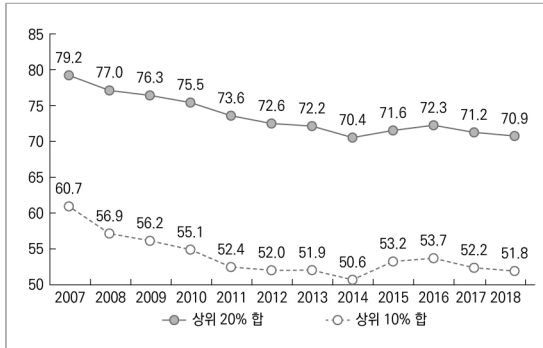
- 동부의 IT 산업 클러스터가 쓰촨, 허난 등지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간재 수입증가
 - 산둥은 일차상품(특히 석유) 수입이 크게 증가

- 또한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인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산업을 육성 중으로 관련 신에너지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전망이며, 관련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

● **대한국 수입시장은 광둥, 장쑤 등 기존 수입 상위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추세(대중국 수출지역 집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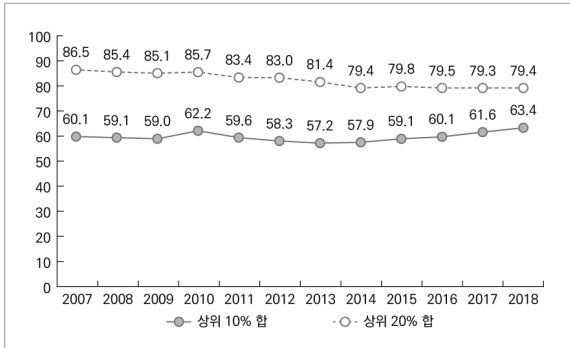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전자·컴퓨터·통신설비 및 화학제품 관련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생산기지(=중간재 수입 집중 지역)로의 수출이 더욱 집중
- 반면 동부의 산둥, 톈진, 베이징 비중은 크게 하락
 - 이는 주로 중국 내 경쟁과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 철수 및 생산감소가 원인
-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는 허난 등 일부 내륙지역이 부상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에서는 큰 변화 없음.

그림 6. 중국 수입액 상위 10%, 20% 지역의 비중 변화 (단위: %)



주: 상위 10%에는 광둥(23.5%), 장쑤(14.2%), 상하이(14.1%), 상위 20%에는 산둥(9.0%), 저장(5.4%), 베이징(4.7%)이 포함(2018년).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그림 7. 대한민국 수입액 상위 10%, 20% 지역의 비중 변화 (단위: %)



주: 상위 10%에는 장쑤(28.6%), 광둥(26.0%), 상하이(9.8%), 상위 20%에는 산둥(7.4%), 저장(4.6%), 톈진(4.3%)이 포함(2018년).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 **중국 수입시장에서 의료용품,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입품목 관련 지역구도 변화³⁾**

- 의료용품, 화장품 등 품목은 소득수준 상승 및 수입품 선호 현상, 인구구조의 변화 등 수요 측면의 요인과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려는 정책요인이 맞물려 수입이 상승하는 추세
 - 의료용품은 중국 지역 단위로 수입제한 완화조치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수입 확대 가능성
 - 다만 의료기기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자국산업 육성 및 암묵적 시장진입 제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의료용품, 반도체, 자동차 완제품 등은 수입 상위권 지역 집중화 추세, 반면 화장품, 자동차부품

3) 주요 수입품목의 선정 기준은 [부록 표 1] 참고.

등은 분산 추세

- 중국 내 자동차 생산기지가 분산되어 분포하여 자동차부품 수입시장도 다수 지역으로 분산
 - 화장품 수입은 소득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에서 허난 등지로 분산
- 한편 반도체 등 민감품목은 미중 갈등, 코로나19 확산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이례적인 수입증감 현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대한국 수입시장에서 주요 수입품목의 지역구도 변화⁴⁾**

-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는 의약품 및 자동차 완제품의 수입 비중이 크지만 대한민국 수입시장에서는 의료기기, 자동차부품이 큰 비중을 차지
-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지역이 분산(수입수요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화장품은 산둥 및 허난, 의약품은 텐진
 - 산둥과 허난의 화장품 수입규모는 상하이보다 작지만 해당 지역 전체 화장품 수입에서 한국산의 비중은 각각 약 90%, 45%에 달함.
- 대한민국 반도체·자동차 수입의 지역구도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지역에 큰 영향을 받음.
 - 대한민국 반도체 수입이 크게 상승한 장쑤 및 산시는 수입한 반도체가 후공정을 거친 뒤 한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많아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③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과 주요국 간 경쟁구조 변화⁵⁾**

● **금융위기 이후 한국·대만·일본·미국·독일 주요 5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합계)은 하락하였고 가공단계별로 반제품과 소비재에서, 업종별로 금속제품 및 섬유·의복·가죽제품 제조업에서 점유율 하락**

- 주요 5개국 중 독일만 점유율 상승(특히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일본은 점유율 하락폭이 가장 큼(자본재 이외 모든 가공단계에서 하락).
- 한국과 대만 역시 부품·부분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단계에서 점유율 하락
 - 한국의 점유율 상승 품목에서 대만 및 독일의 점유율도 상승하여 경쟁 심화 가능성
- 업종별로 한국은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특수설비, 전자·컴퓨터·통신설비, 전기기계, 농업 5개 업종에서 점유율 상승, 이 중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특수설비, 전기기계는 비교우위도 상승
 - 비금속 광물제품은 일본·대만이, 일반·특수설비는 일본·독일·미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하여 한국과의 경쟁심화 예상
 - 전자·컴퓨터·통신설비는 한국과 대만이 경쟁우위를 가지면서 시장점유율도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대만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4) 중국의 대세계 및 대한민국 수입 중 주요 수입품목의 지역구도 변화 관련 분석결과는 [부록 그림] 참고.

5) 본 연구에서 중국 수입시장 내 주요국은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5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경쟁관계는 수입시장 점유율 및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 **시장비교우위(MCA) 분석결과, 한국은 금융위기 전후로 전자·컴퓨터·통신설비, 석유·석탄가공, 금속제품제조에서 비교우위(수출경쟁력) 유지**
 - 다만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 수가 주요 선진국 대비 적고 전자·컴퓨터·통신설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만과의 경쟁이 치열
 - 한편 비교우위가 생긴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특수설비, 전기기계 제조

- **[수입 거점지역 내 경쟁] 광둥 수입시장에서 주요 5개국 중 한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높았으나 비교우위 품목은 적었고, 장쑤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은 상승했으나 중점업종 관련 점유율 및 비교우위는 낮았음.**
 - 광둥에서 한국과 대만은 광둥의 주력산업인 전자·컴퓨터·통신설비 관련 비교우위 품목 수가 주요 5개국 중 가장 적었고 비교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업종도 적었음.
 - 즉 한국과 대만은 소수 품목에 대해 독보적인 우위를 가진 것이며, 해당 품목의 비교우위 유지 여부에 따라 광둥 수입시장 내 점유율 변동 가능성이 큼.
 - 장쑤의 주력산업인 화학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하락세이며, 특히 수입 확대 추세인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은 시장점유율도 낮고 우위 품목 수도 적음.
 - 반면 미국은 화학 분야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고, 그중 의약품 시장 내 우위 품목 수도 증가 추세
 - 산둥에서는 주요 5개국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 특히 중간재 시장에서 한국의 하락폭이 가장 큼.
 -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용 원자재와 운송장비부품에 대한 미국의 비교우위가 상승하여 관련 품목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베이징에서는 주요 5개국의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은 하락
 - 특히 베이징의 교통운수설비 분야 수입(중국 내 최대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시장점유율도 하락하고 비교우위도 상실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점유율 및 비교우위도 제고

-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의료용품,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관련 경쟁관계**
 - 의료용품은 독일·미국 등 선진국의 높은 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기술축적이 필요한 의료용품의 특성상, 세부 품목마다 매우 상이한 경쟁구도를 형성
 - 특히 임플란트 수입시장에서 한국, 스위스,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가 크게 상승
 - 중국의 임플란트 수입시장은 수입대상국이 비교적 한정적이고, 중국 노년층의 증가로 잠재시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진출 기회가 더욱 증대될 가능성
 - 화장품은 한국, 일본, 프랑스의 점유율이 과반이며 2014년 이후 한국의 점유율이 급증하여 2018년 1위 수입국으로 부상

- 다만 2019년 이후 한국의 점유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일본·프랑스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고급화장품 출시 등 시장 진출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 중국 지역별 화장품 수입시장은 소비계층의 선호에 따라 중국 전체 수입시장과 매우 다른 경쟁구도를 형성, 특히 신규 수입시장으로 부상한 허난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은 40%, 산둥에서는 80%대
-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의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여 2019년 50%를 넘어섰으며 현지 투자기업과 높은 상관성
 - 다만 대만은 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가 계속 상승세인 반면, 한국은 소폭 하락
 - 대만, 한국 다음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상당 비중의 중국산 반도체가 홍콩을 거쳐 재수입되는 것으로 추정(광동성 반도체 수입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
 - 한편 장쑤와 쓰촨 수입시장은 중국 전체 반도체 수입시장과 매우 다른 경쟁구도를 보이는데 장쑤에는 한국기업이, 쓰촨에는 미국기업이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자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자동차 관련 중국의 수입은 지속 상승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은 2014년 이후 급감하여, 완성차 및 부품 시장에서 점유율도 하락하고 비교우위도 상실
 - 완성차는 독일·일본·미국이 높은 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 유지, 단 일본의 점유율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중국 자동차 시장 환경 및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경차 중심으로 점유율 회복 추정)
 - 지역별 완성차 시장은 화장품과 유사하게 소비계층의 선호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의 경쟁관계 형성
 - 한편 자동차부품은 독일 및 일본이 높은 점유율과 비교우위 유지
 - 다만 한국은 2018년 베이징, 상하이, 산둥의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 유지, 특히 산둥에서 한국 점유율이 76.2%에 달했는데 이는 현지에 투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때문

3. 정책 제언

1)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방향

- 미중 갈등 및 경쟁 심화 추세 속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협력 중심의 경험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중국 지방정부와 한국 간 협력, 양국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및 다원화 등

- 대체 불가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내수시장의 지역별 특징, 구조적 변화, 지역간 경제관계 변화 등을 고려한 협력 및 협상 필요
-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이 유지·상승되고 있는 분야·품목과 관련된 생산 밸류체인(수입 거점지)에 집중된 교류·협력 강화와 한국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관련 지역 발굴 방안 모색 필요

2) 협력 유망 지역 및 분야

- ① 동부 및 서부 거점 중심의 교통·에너지·디지털·정보화 인프라 시장
- 코로나19 충격 완화 및 경기회복의 일환으로, 서부지역 중심으로 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및 중국 전역의 디지털·정보화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전망
 - 인프라 투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이 2020년 발표됨.
 - 금융위기 이후에도 인프라가 열악한 서부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정책이 추진되었고 내수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음.
 - 또한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정보화 관련 신형 인프라 투자가 새롭게 강조됨.
 - 다만 인프라 투자수요로 유발되는 중간재 수입에 있어서는 여전히 동부지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일부 서부 거점지역에서 수입 증가세가 빠를 전망
 - 중국 지역간 교역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부의 인프라 투자수요로 유발된 수입중간재는 서부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동부에서 수입 및 가공하여 서부로 이출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화동지역에서 생산한 전자전기제품, 기계설비 및 자동차 등이 서부로 이출 비중이 높는데, 화동지역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일부 부(분)품을 직접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이출
 - 이에 서부의 투자수요에 사용된 국산품에 수입중간재가 포함되며(서부 수요로 유발된 중간재 수입), 중간재 수입을 유발한 수요지역(서부)과 직접 수입하는 지역(동부)이 상이할 수 있음.
 - 디지털·정보화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고 시행하는 기업이나 기술 역시 동부지역이 중심이 될 것
 - 첨단기술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동부에 편중되어 있고 14·5 계획기간 중앙정부가 동부지역의 역할을 ‘현대화 선도’로 규정하였으며 동부 각 지역 역시 혁신 분야 선도를 가장 중시
 - 한편 물류·통관 등 무역 및 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충되어 교역 증가세가 빠른 일부 서부지역은 현지 수요에 필요한 중간재를 직접 수입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전망(쓰촨, 충칭 등)
 - 건설업, 기계설비·교통운수설비 및 전자·컴퓨터·통신설비 제조업, 세일가스 개발 등 인프라 관련 중간재·자본재와 디지털·정보기술 관련 서비스의 수입수요가 증가할 전망

- 다만 중국이 자립형 내수경제를 지향하고 있어 투자부문에 사용될 중간재의 수입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가능성(금융위기 이후에도 소비용 수입보다 투자용 수입의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

② 동부 및 중서부 일부 거점 중심의 신산업 및 제조업 투자 분야

● 중국이 미중 갈등 및 미래산업 발전 등에 대응하여 전략적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

- 66개 전략적 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핵심기업, 산관학연 협의회, 공동 플랫폼, 인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시스템을 구축 중
 - △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차세대 정보네트워크, 정보기술서비스, 네트워크 정보보안 상품·서비스, AI 등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 스마트 제조, 궤도교통 등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환경보호·에너지 절감 분야가 포함
- 66개 클러스터 중 첨단과학기술 관련 업종은 주로 동부 및 일부 내륙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정자원 관련 업종은 주로 중서부·동북 지역에 분포

● 한편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중점 추진 중인 중부 및 일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금융위기 이후에도 서부는 인프라 투자, 중부는 제조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
- 중앙 14·5 계획에서도 중부지역 제조업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가 증시됨.

③ 동부 및 일부 내륙 거점 중심의 비대면, 온오프라인 융합 등 신(新)소비시장

●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위하여 의료·교육·창업·취업·전시 관련 온라인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발전 등 신소비모델을 촉진

- 2020년 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 소매 비중이 30%에 달하였고, 코로나19 이후 데이터 소비도 급증하여 향후 소비 패턴 역시 온오프라인 융합 소비로 전환될 전망
- 온라인 쇼핑·교육, 원격진료, 비대면 문화·레저 관련 서비스 및 관련 교역이 더 발전할 전망

● 온라인 소매시장은 특히 광둥, 저장, 상하이, 장쑤 등 동부지역에 집중, 향후 이 추세가 강화될 전망

- 동부지역이 시장규모뿐 아니라 온라인 소비에 필수적인 정보기술 및 물류·유통 인프라 수준도 높기 때문이며, 온오프라인 융합 등 새로운 소비방식 관련 기술 및 기업도 동부에 집중
 - 2019년 기준 전체 온라인 소매시장 중 광둥 비중이 21.4%

● 의료기기(임플란트), 화장품 등 한국의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을 중심으로 신소비 방식을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진출지역 확대를 추진할 필요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비교우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품목의 사용 관련 시연 및 교육,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
 - 의료용품, 화장품 등은 소득수준 상승 및 수입품 선호 현상, 인구구조 변화 등 시장 측면의 요인과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려는 정책요인이 맞물려 수입증가 추세
 - 특히 의료기기(임플란트), 화장품은 한국의 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가 높은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

3) 새로운 협력모델 모색

① 중국 지역발전전략을 활용한 협력

- 중국이 자립형 내수 강화를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추진 중이므로, 이를 활용한 실리적 협력 모색 필요
 - 특히 14·5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창장삼각주 통합발전,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및 서부의 청위(쓰촨·충칭) 도시군 발전정책 등을 활용할 필요

표 7. 중국 주요 지역발전전략 및 협력방안

| 지역발전전략 | 특징 | 유망 분야 | 협력 방식 |
|----------------------------------|---|--|---|
| 징진지 협동발전 (베이징, 톈진, 허베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안신구 개발을 통한 베이징의 수도 기능 강화 및 역내 경제·산업협력 강화(기존 역내 산업 보완관계 및 파급 효과 미미) •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사업, 다양한 제도적 우대 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안신구 등 도시기능 재편 관련 첨단 인프라 구축(5G·스마트시티·친환경), R&D 및 기술협력 분야 • 베이징은 ICT(중관춘), 서비스, 문화, 톈진은 정보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스마트 인프라, ICT 기술협력, 문화 콘텐츠 관련 정부간 협력채널 활용 • 과학기술의 산업화·상용화 관련 협력 |
| 창장삼각주 통합발전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고도화, 고급 서비스업 클러스터 구축, 미래산업 육성 • 역내 공공서비스·제도적 통합 추진(프로젝트 진입기준, 인재 상호인증 등) • 한국의 최대 대중 수출·투자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회로, 디스플레이, 첨단장비, 자동차, 신소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금융, 전자상거래, 스마트헬스, 문화, 양자정보, 면역·출기세포치료, 유전자 검사 등 • 다양한 고급 소비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밸류체인 참여를 통한 역내시장 및 내륙 진출거점 확보 • 첨단·미래산업 분야의 민간 협력 지원 • 온라인 SNS 마케팅, 온오프라인 유통 거점화 |
| 웨강아오 대만구 (광둥, 홍콩, 마카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및 서비스 분야 제도 개방: 홍콩·마카오에 대한 배타적 우대 혜택 • 일국양제, 시장경제체제 선행 실험, 일대일로 국제화 • 미중 갈등 등 정치적 리스크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신소재 등 첨단기술, 자동차부품 관련 공급사슬 및 R&D 분야 • 교육, 법률, 운송, 의료, 금융, 문화 등 서비스 개방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선전 혁신과학기술센터 활용(R&D 분야,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 • 광둥 공급망 참여 •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관련 벤치마킹(CEPA+α) |
| 서부대개발 및 중부굴기 (중서부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확대 중심지(서부-인프라, 중부-제조) • 특장거점 중심 클러스터: 차세대 ICT,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교통물류, 바이오, 신에너지 등 • 내수에 사용되는 수입품은 주로 창장삼각주 및 광둥에서 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관련 기술 응용 협력 • 청위(쓰촨·충칭)도시군 중심으로 내륙시장 타깃 중간재(인프라/제조 관련 설비 등) 및 최종소비재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시장 진출 목적의 역내거점 밸류체인 참여(차세대 ICT,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등) • 신행 도시화 추진으로 육성되는 친환경·디지털 인프라 및 신소비 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제품 진출 |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 관련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환경 및 ICT 기술협력,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을 양국 정부간 채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산업화 협력을 지원**
 - 징진지 협동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시 주석이 직접 언급한 송안신구가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개발되고 있어 관련 신형 인프라 분야와 R&D 및 기술 협력 등이 유망
 - 신형 도시화의 상징성이 큰 송안신구 관련 협력 추진은 중국의 도시화 관련 시장 진출에 중요
 - 베이징은 ICT, 과학기술 및 정보 관련 고급 서비스,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이 유망
 - 징진지는 역내 산업보완 관계에 의한 발전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사업 및 다양한 제도적 우대혜택이 기대되므로 정부간 채널 활용 필요

- **중국 최대 제조 클러스터이자 소득·소비 수준도 높은 창장삼각주 지역을 첨단제조업 관련 중간재 및 고급소비재의 수출 타깃 지역으로 활용하면서 중국 내 공급망 참여 검토 필요**
 - 오랜 기간 산업 보완관계를 통해 발전해온 상하이·장쑤·저장은 역내 경제통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 진입기준 및 인재 상호인증 등 제도적 통합을 강화 중
 - 상하이·장쑤·저장에서 생산된 첨단제조품과 서비스가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출되는 비중도 높고 창장삼각주 내 소비수준도 높아 수출거점으로서의 중요성 증대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신소재 등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
 - 특히 장쑤는 쌍순환 전략 추진에 있어,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 사이에 ‘아시아 소순환’을 언급하면서 한국 등과 밸류체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창장삼각주 밸류체인 참여를 통한 현지 및 내륙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
 - 첨단 제조업을 비롯하여 AI, 빅데이터, 금융, 전자상거래, 스마트헬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민간 협력 확대와 우리 수출품의 온라인 SNS 마케팅 및 온오프라인 융합 유통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웨이강아오 대만구(GBA)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개방조치, 홍콩·마카오 기업에 대한 배타적 우대혜택 등을 한중 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GVC 참여도가 높은 광둥의 내수전환 및 공급망 강화에 대응할 필요**
 - GBA에서는 홍콩·마카오 수준의 시장 개방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법률, 금융,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가 중국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할 전망(GBA에서 홍콩·마카오 기업 대상)
 - GVC 참여도가 높은 광둥은 한국과도 휴대폰 등 전자 분야에서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광둥의 산업정책, 공급망 강화, 홍콩과의 기술혁신 협력 등 변화에 대한 대응 및 활용 모색 필요
 - 광둥의 내수 전환 정책 및 홍콩과의 시장통합 환경 등을 활용하여 내수시장 진출 확대 필요
 - 분업관계를 활용한 수출 확대 및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광둥 밸류체인 참여를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입 대체 및 해외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서부의 청위(쓰촨·충칭)도시군을 중심으로 내륙시장 타깃 중간재 및 최종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모색
 - 청위도시군은 중국이 내수확대 방안으로 추진하는 신형 도시화 정책의 핵심지역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인프라 및 제조 설비 관련 중간재 수요와 도시화율 제고에 따른 소비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며 물류·통관 등 인프라 확충으로 무역이 급증
 - 내륙 신규 소비시장의 수요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제품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
 - 중서부의 제조업 거점인 후베이, 허난, 쓰촨, 충칭, 산시 등의 차세대 ICT,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분야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관련 밸류체인 참여를 통해 내륙시장 진출도 고려

② 서비스 융합형 진출 확대방안 모색

-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융합 진출방식을 활용할 필요
 - 중국의 자립형 내수강화 정책으로 수입대체 및 서비스업 발전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므로 한국은 전자·화학 및 중간재에 집중된 경쟁우위 개선 및 기술우위 기반의 서비스 융합 수출 확대 필요
 - 일본기업은 중국의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프로젝트에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
 - 히타치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에 대응하여 5G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엘리베이터, IoT (Internet of Things)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건설 분야에서 협력 추진
 - 미쓰비시는 스마트 공정 관련 설비를 판매하면서 생산라인 구축 서비스 및 관련 프로그래밍 인터넷 강의 제공 등 현지화 서비스를 결합하여 베이징, 톈진, 선전, 광저우 등 주요 지역에 진출

③ 중국 내 밸류체인 참여 확대

-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 등으로 중국의 역내 공급망 강화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중국 내 밸류체인 참여 확대 필요
 -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중국은 중점산업의 역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가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에 더 강력한 명분이 됨.
 - 중앙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클러스터 강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산업발전 및 경제자립을 위한 공급망 강화 정책을 추진 중
 - 14·5 계획에는 과거 산업육성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공급과잉을 우려하여 신산업 관련 중복투자 방지가 강조됨.
 - 일부 민감기술·품목을 제외하고 친환경, 디지털·스마트화,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중국의 내수 시장 확대에 인한 기회를 활용할 필요 **KIEP**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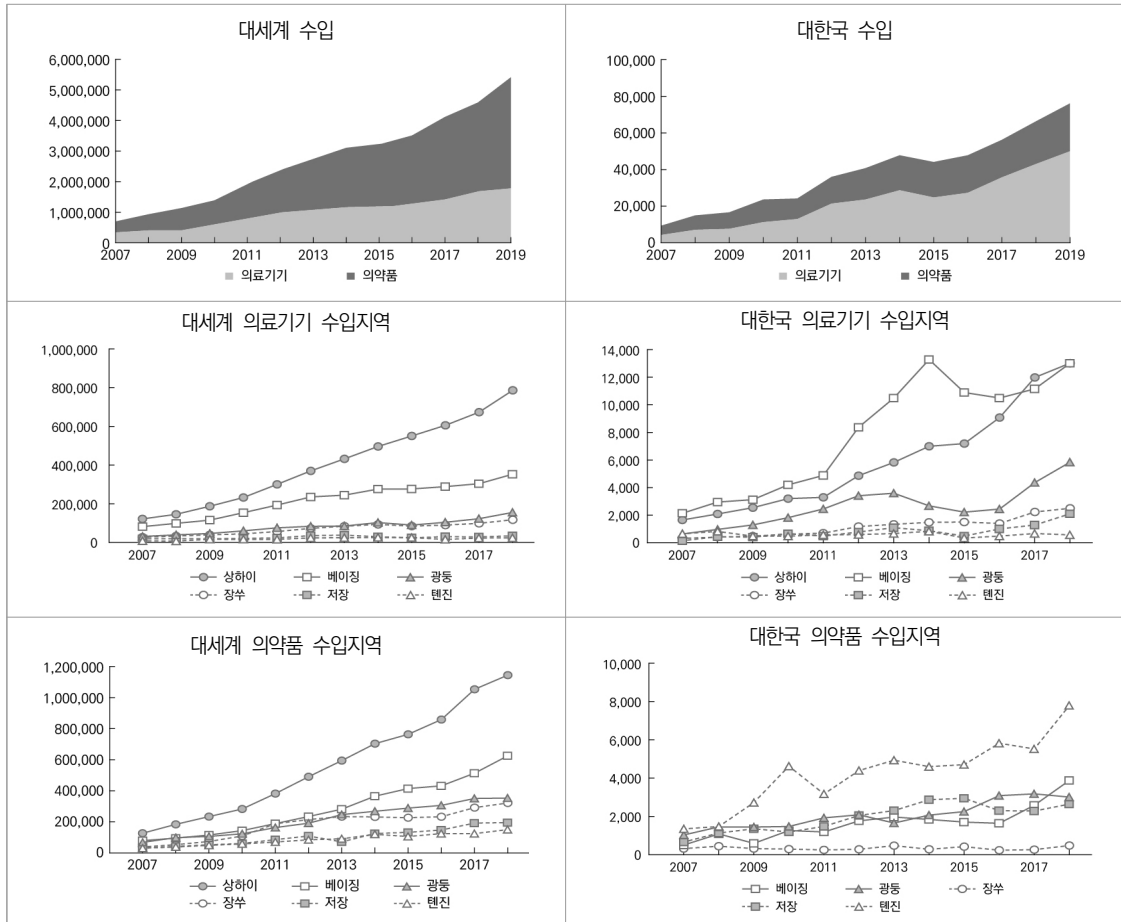
부록 표 1.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 선정 기준

| 구분 | 대세계 수입액 ↑ 대한국 수입액 ↑ | 대세계 수입액 ↑ 대한국 수입액 ↓ | 대세계 수입액 ↓ 대한국 수입액 ↑ 또는 유지 |
|-------|--|---|------------------------------|
| 주요 품목 | 의료용품(중간재, 자본재, 소비자재) 화장품(소비재) 식품(소비재) 반도체(중간재) | 자동차(중간재, 소비자재) 피혁·모피·신발(중간재, 소비자재)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중간재, 소비자재) | 화학섬유 (중간재, 소비자재) |

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 1. 중국 대세계 및 대한국 의료용품 수입 및 수입지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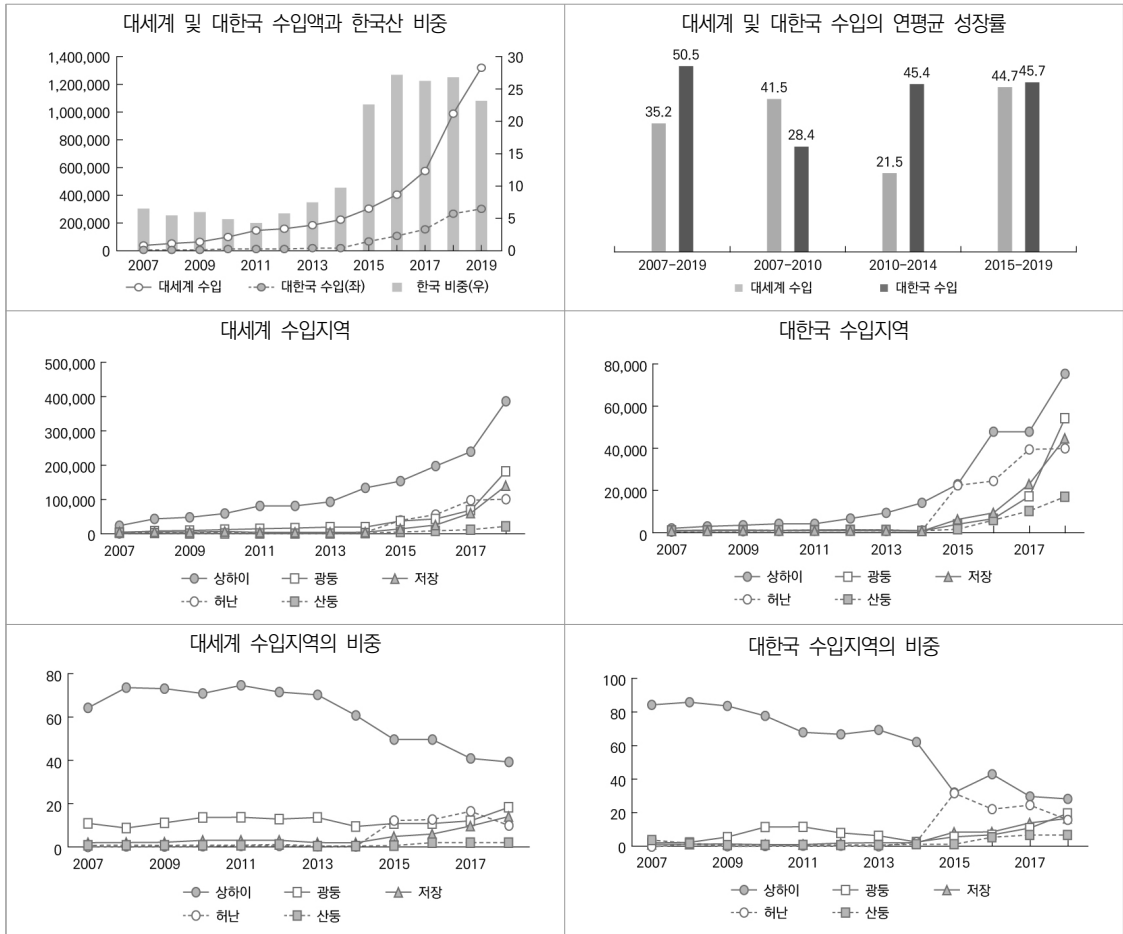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부록 그림 2. 중국 대세계 및 대한민국 화장품(소비재) 수입 및 수입지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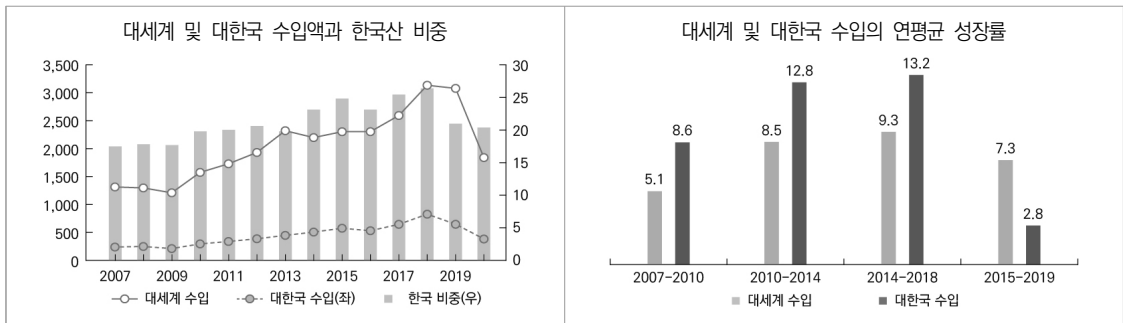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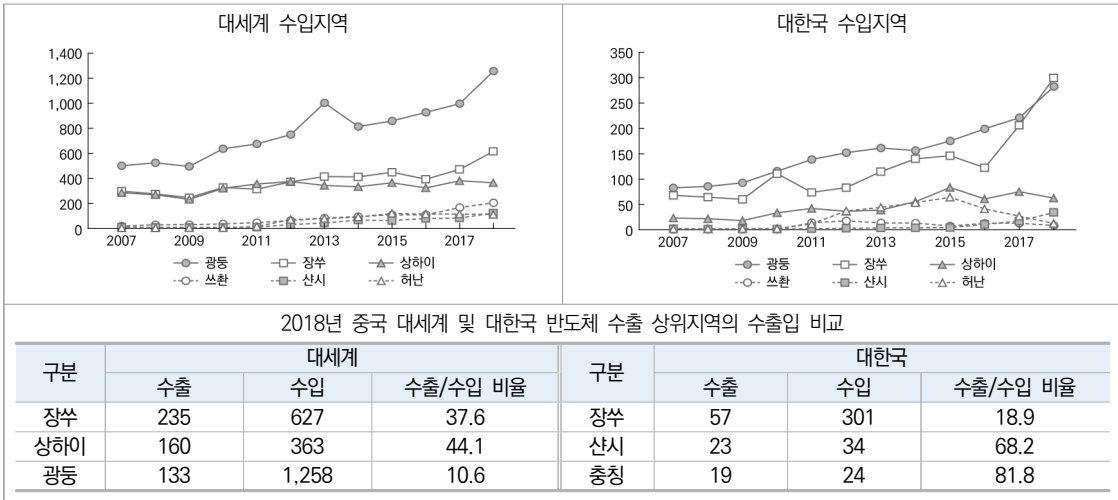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부록 그림 3. 중국 대세계 및 대한민국 반도체 수입 및 수입지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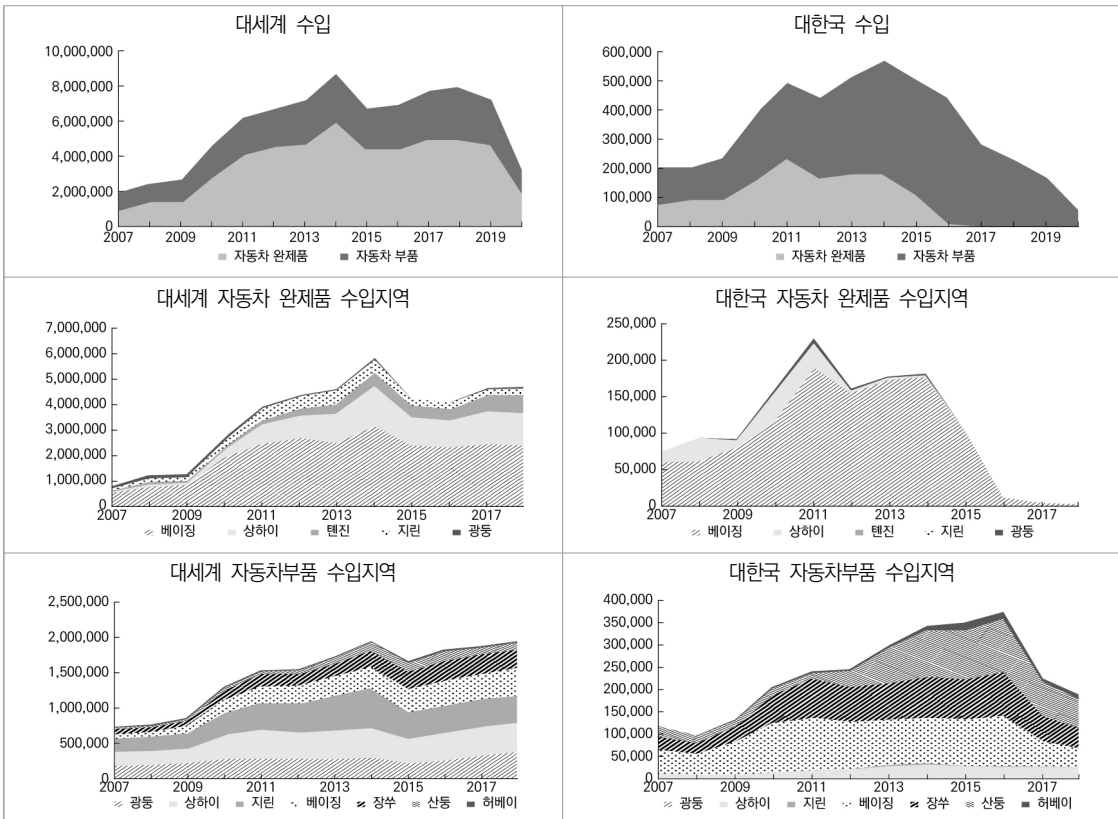
부록 그림 3. 계속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

부록 그림 4. 중국 대세계 및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 품목 수입 및 수입지역 추이

(단위: 만 달러)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2020)에서 재인용.